

조동걸 교수

푸른역사/A5신/568면/28,000원

국민대 조동걸 명예교수(70)는 지난 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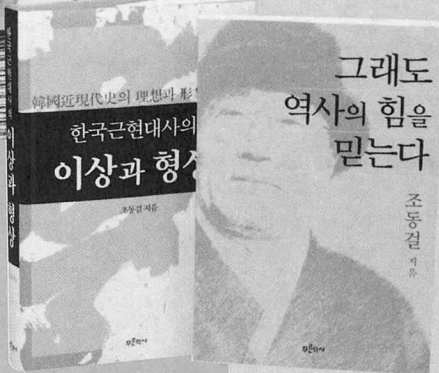
정년퇴임 이후 도봉산 우이암이 보이는 곳에 18평짜리 좁다 싶은 연구소를 마련하고 '우이서재'라는 작고 소박한 현관을 직접 써서 현관문 위에 걸어뒀다.

"나이 들어 우이암 밑에 와 공부하니 다 소귀에 경 읽는 것 같다 싶어서 그렇게 써뒀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학문적 열정의 소산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저 겸양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사, 그리고 현대사학사 연구의 개척자로 외길을 걸어왔던 그는 정년 이후에도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지식산업사)와 《현대 한국사학사》(나남출판) 같은 굵직한 저서를 두 권이나 출간하는 등 지칠 줄 모르는 학문적 열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최근 또 두권의 책을 세상에 내놨다. 《한국 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그래도 역사의 힘을 믿는다》(이상 푸른역사)가 그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은 조교수가 정년 이후 3년간 발표한 논문 21편을 수록한 책이다. "한국 근현대사가 보여주는 발전상, 즉 이상이 현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여러 단체나 사건, 사람을 통해 구명하고자 했다"는 것이 조교수의 설명. 이 책에서 조교수는 독립운동의 사실 규명이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의 이념과 의미를 밝히는 데 힘을 쏟는다. 당시의 시대적



푸른역사/A5신/348면/12,000원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방된 조국과 현대사, 나아가 당면한 현실 문제들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역사는 과거 속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 있다"며 "앞으로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학"을 강조하고 있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조교수가 지방답사를 통해 발굴한 국내 유일의 의병유적지를 다룬 <쌍산의소(화순)의 의병성과 무기제작소 유지>나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처럼 지방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묻혀 버렸을 소중한 논문도 실려 있다. 독립운동이나 의병전쟁이나 모두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사람들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는 조교수는 지방의 문제, 민중의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고 온전한 역사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의 역사학이 '인간주의 역사학'으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역사해석의 방법론들은 그야말로 수단일 따름이라며 역사학의 중심도 기준도 '인간'임을 강조하는 조교수는 이른바 '총체적 사관' '사회문화사학'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은이의 역사관과 철학 엿볼 수 있어

조교수의 이런 역사관과 철학, 그리고 그에 기초한 현실 비판과 전망 등은 함께 출간된 칼럼집 《그래도 역사의 힘을 믿는다》를 통해 좀더 쉽게,

'역사의 힘' 믿는 '반골 학자'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외 펴낸 조동걸 명예교수

조동걸 교수가 두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저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교수는

이번 책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학을 강조했다.

특히 조교수는 그동안 사학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지방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총체적 사관과 사회문화사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리고 좀더 강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근대화와 민주화' '인간성과 도덕성'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등 그의 필생의 연구주제들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인류전반에 닥친 환경오염의 위기에 대한 경고도 있고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그 바탕철학이 되는 '사회진화론적 기능주의'에 대한 경계도 있다. 또한 박정희 기념관 건립 움직임이나 한·일 어업협정이나 <재외동포법> 등 현실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따끔한 비판뿐 아니라, 시민운동의 정치참여, 대중경제와 농촌경제의 개발로 21세기 경제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포함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이나 지인들과 나눈 정담 등 개인적인 감상이 녹아 있는 글들도 있어 '반골 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의 인생역정과 삶의 편린을 따뜻한 마음으로 엿보게 한다.

"1977년 출판사의 강권으로 부족한 체로 출판했던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한길사)를 절판시키면서 곧 개정판을 내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뜻을 못 이뤘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늙어버렸는데 여태도 그것이 제일 큰 짐입니다."

지난 1999년 그가 주도해 창립한 한국사학사 연구회 회장직도 내놓은 조교수는 그의 말대로라면 완전한 '백수건달'이다. 그래서 더 자유롭다는 그는 그래도 매일 아침 '우이서재'에 나가 경전처럼 삶의 길을 알려주는 역사서를 읽는다.

- 박남정(자유기고가)